

圓峯先生의 八旬을 祝함

圓峯 劉鳳榮 先生은 어느덧 八旬을 맞이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다 오래 살기를 원할 때, 長壽는 五福의 첫째로 손꼽는 것이다. 옛날부터 人生七十古來稀라 하여 70을 사는 것도 드물다 하였는데, 先生은 거기에 10年을 더 보태어 80에 이르렀으니 진실로 祝賀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先生은 五福의 첫째인 長壽를 享有할 뿐만 아니라 나머지 四福도 다 누리고 있다. 五福에는 여러가지 說이 있으나 대개 長壽·富貴·康寧·德望·多男을 말하는 것이 보통이다. 先生은 큰 富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나 生活에는 걱정이 없으며, 또 弱冠 시절부터 亡國의 恨을 품고 上海·滿洲 等地로 돌아다니면서 獨立運動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初年에는 苦生도 많이 하였으나, 解放後 言論界에 投身하여 朝鮮日報 編輯局長으로부터 主筆·副社長을 歷任하고, 지금도 大韓公論社의 常任監査役을 맡고 있으며, 政界에 들어가 國會議員이 되고, 學界에서 白山學會 會長과 民族文化推進會 理事長을 맡고 있으며, 기타 國家 및 각종 社會團體의 顧問 또는 委員으로 推戴되어 있으니, 이만 하면 富貴도 享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五福의 세째인 康寧은 健康을 意味하는 것인데, 내가 先生과 사귄 지 數十年이 넘었으나 언제 보아도 健康한 모습이며 지금도 青年에 못지 않게 活動하고 있으니 康寧의 福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五福中에 가장 구비하기 어려운 것이 德望인데, 이 점에 대해서도 先生은 萬인이 尊敬하는 덕망을 가지고 있다. 德潤身이란 옛 말과 같이 先生은 外貌에 德이 풍길 뿐만 아니라, 항상 仁慈한 마음과 謙虛한 태도로 사람을 대하고 事物을 올바르게 判斷하였기 때문에 感服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며, 그 결과 德望이 날로 높아져 言論界 政界 學界의 지도자가 된 것이다. 그리고 先生은 膝下에 五男과 수많은 孫子를 두고 있으니 五福의 마지막인 子女의 福도 또한 가지고 있다. 이렇게 先生은 世人이 具備하기 어려운 五福을 享有하고 八旬을 맞이하였으니 거듭 慶賀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先生은 八旬이라 할지라도 아직 健康하다. 앞으로 더욱 健康에 留意하여 先生이 白山學會를 創立한 目的이 達成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南北統一 이후 中國政府와 교섭하여 舊韓國末期 우리나라 領土였던 白頭山 東北 間島地方을 도로 찾을 때까지 오래 오래 享壽하시기를 祝願하는 바이다.

申 奭 鎬

(東大대우교수·~~本會~~研修院교수)